

# '연계 · 융합 · 공유, 전북자치도에 기적'

### 전북자치도, 김 지사 등 참석 2월 소통의 날 행사 개최 내년부터 시행될 전북특별법 특례 준비에 총력 당부

김관영 도지사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북특별법 특례 준비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2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공직선거법 교육,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포상 및 발표, 명사 초청 특강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 시작 전 올해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관련 행위 금지 안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박종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본 행사 개최 후 김 지사는 "전북특

별자치도 출범한 지가 한달 가까이 되었는데, 새로운 특례도 발굴하고, 기존 특례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늘어나서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은 작년에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안을 다듬고,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조인과 지도 등 가장 애를 많이 써 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

상조 수석전문위원님을 특별히 초청해 명사특강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유상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유 수석전문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적은 주민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이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가면 일자리도 있고 교육·의료 여건도 좋고 한마디로 말해서 살맛 난다는 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며, 사람이든 특구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연계하고 융합하며 공유해야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력해 준 유 수석전문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된 홍석호 마케팅통상지원팀장, 정재관 안전정책팀장, 최용대 정신건강팀장, 양상봉 ICT산업기반팀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매월 개최하는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전 직원이 도정현안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특강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월 소통의 날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가 유상조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유공 감사패를 전하고 있다.

##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 전북특별자치도 홍보 카드뉴스 제작... 홈페이지 등 게재

전북도는 지난 1월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전북특별자치도 홍보 카드뉴스를 제작해 유관기관, 시·군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게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에는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전북특별법 내용 중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미와 필요성, 달라지는 내용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알기 쉽게 담았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례'라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실행해 가는 과정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북'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으로 도민들의 흥미를 유도했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관심 및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도내 대형마트와 가전매장 출범기념 할인행사 진행 및 '알기쉬운 전북특별자치도 홍보 웹툰' 미니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달 3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숲속 헬린지' 소셜네트워

크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해 20여 팀 참여, 2,100여 건 영상이 공유됐으며, 지난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된 댄스챌린지 영상 중 당첨자를 선정해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했다.

또한 전북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기념우표는 2월 16일까지 전북우정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일, 잘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받게 된 것이다.

도는 앞으로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에 담겨있는 333개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개 핵심산업과 3개 기반인 인프라, 인력, 제도 활용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해 나가게 된다. /김재훈 기자

## 설 명절 축산물 위생점검 및 이력제 단속, 위반 7개소

전북특별자치도는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18일간 설 명절 대비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57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이력제 단속 결과 7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8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일제점검을 실시해 식육판매점, 선물세트 제조 가공업소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

으로는 위생교육 이수료, 건강진단 미 실시, 이력제 거래내역 신고지연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식육 및 선물세트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8건 모두 적합했고, 유통 중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 65건 중 불일치 2건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구급차 병원성 세균 전수조사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은 올해 119구급차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도내 15개 소방서와 함께 115대 구급차 내부의 병원성 세균 검사할 수 있는 상반기까지 완료한다고 14일 밝혔다.

119구급차는 다양한 질병 및 외상 환자 이송으로 접촉을 통해 전파 될 수 있는 병원균 저장소로 작용할 수 있어 체계적인 감염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며 선제적 검사를 통해 2차감염을 차단하고 구급대원과 국민의 구급차 이용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검사대상은 올해 운용되는 구급차

115대 내부물품 5개분야(기도유지기, 호흡, 심혈관계 관련 물품 등 환자 보호물품과 운전석 및 부좌장비 등) 22 품목에 대해 구급대원과 면역력 저하 환자에게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병원성 세균 4종(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페렴간균, 바실루스 세레우스)이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작년 구급차 111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정비의 감염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 공공발주 건설공사 상반기내 70% 이상 발주 공장 신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인센티브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 금리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 '전북자치도-건설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체 의견을 반영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 4개 분야, 21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진 종합 계획 추진을 통해 올해 5조1,762억원의 신규 건설공사 발주 규모(공공분야) 중 지역업체가 2조9,115억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침체된 지역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로, 하천 등 올해 예정된 공공 발주 공사를 상반기 내 70% 이상을 발주할 계획이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5천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다자간 업무협약,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분야 확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 규정 개정, 지역 우수업체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고, 타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해 특별자치시도만을 위한 계약분야 지역업체 우대 규정 마련을 중앙부처

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공사 시 도 자체 설계 기준 활용, 품질관리자 배치 검직 허용 등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민간 공사 분야에서도 조례 개정, 현장 행정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늘려 나간다.

최근 도내 기업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광역 지자체 최초로 투자기업 공장 신축 시 지역업체 이용 실적에 따라 기업 투자 보조금의 최대 5%를 추가 지급해 지역업체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분양 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현장과 본사를 방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지역자재 우선 사용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건설업계 분위기, 정책 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연2회 개최, 건설사업자 간담회 분기별 실시 등 민관이 함께 개선 과제를 발굴,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건설업체와 소통하며 지역업체가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시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